

무더기 유급 코앞...정부·의대생 '동상이몽'

교육부 "자발적 수업 참여 계기 되길"

일부 의대생 "투표는 하되 수업 거부"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뚜렷한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의대생 모두 수업 참여를 묻는 설문조사를 두고 서로 다른 기대와 대응 방법을 내놓으며 맞서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 학생들의 모인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의대생을 대상으로 수업 복귀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쳤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했

다. 22일에는 의정갈등 이후 이 부총리와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와 각 의대 학생회 등에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요원한 상태다. 이날 말까지 대부분의 의대가 분과 4학년의 1학기 유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강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저학년 의대생들도 5월 초중순까지 유급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과 별개로 올해는 지난해 '학사 유연화'와 같은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교육부와 대학이 거듭 강조한 만큼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 조치는 불

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의대 모집인원 조정 취지가 무색하게 내년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2026학년도에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또한번 학생들의 복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출입기자단에 안내를 통해 "학교현장과 의료계 커뮤니티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이 대다수이나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실제 수업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이에 교육부는 KAMC와 협의해 학생들의 실제적인 수업참여 의사를 확인하고자 익명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수업참여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일부 의대생 단체는 이번 설문조사에 복귀를

하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되 행동에 있어서는 수업 거부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을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제77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연 대한의사회(의협)는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대생들의 복귀와 미복귀자의 유급 처리를 담당해야 하는 각 대학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건국대 의대는 복귀·미복귀 학생을 위한 마음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원광대 의대는 지난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생활 적응검사를 시행한다. 대인관계, 정서안정, 학업적응, 진로적성 등 7개 영역을 온라인 조사 형태로 실시한다.

/뉴스스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수업 혁신 본격화

전남교육청, 전문학습공동체 1368개팀 수업 공동 연구

전남교육청은 교사가 주도하는 자율적 연구와 공동 실천을 통해 교실 수업 혁신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급 교원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문학습공동체 1368개팀 1만6143명이 학교 내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공동 연구하고 실천한다.

이들은 연 2회 이상 수업 나눔과 학기말·학년말 교내 교육과정 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수업 개선에 나선다.

중등교과교육연구회는 54개팀

2837명이 참여, 교과별 심화 연구·평가 개선·수업-평가 연계 방안 등을 실천한다. 연구회는 연 간 수업 공개 2회 이상, 타교과와 연관 1회 이상 등의 교실수업 개선 실천을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한다.

2030 전남교육의 미래 수업을 준비하는 2030수업연구회도 50개팀 287명 규모로 운영된다.

세 연구회는 모두 자발성과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구성·운영되며,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30수업 축제에서 활동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김 호 기자

광산구, 1인 가구 마음 건강 살핀다

광주시 공모 선정 2000만 원 확보...마음챙김사업 추진

광산가 광주시 주관 '1인 가구 Solo Together(솔로 투게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살던집 프로젝트' 범위를 확장하고, 고독사와 연계해 홀로 사는 주민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서 광산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1인 가구에 심리·인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산형 케어홀'을 고고 가는 마음챙김(이하 마음챙김) 사업이 선정됐다.

앞서 광산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거주지 기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살던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나이가든 주민이 요양병원, 요양원 등 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융합 지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산구는 정서적 돌봄, 예방적 심리 지원까지 '살던집 프로젝트' 범위를 확장하고,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음챙김' 사업에 나섰다.

광주시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광산구는 '살던집 프로젝트'로 조성할 '케어홀'을 거점으로 '마음챙김' 사업을 추진한다.

'케어홀'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공간으로, 광산구가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우산동 연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케어홀'의 전문 인력이 1인 가구를 직접 찾아가 심리·인지 지원 서비스와 집단 프로그램을 병행해 운영하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것이 '마음챙김'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이동기 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오늘부터 사전 예약

완도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앞두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상레저 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은 5월 13일 전남 완도군 신항면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며 완도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61-550-2249)에 전화 접수하거나 완도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점검은 완도해경을 비롯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전문 수리업체가 함께 참여해 엔진오일, 연료필터, 배터리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출항 전 필수 점검 사항,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 활성화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함께 병행하며 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무상점검이 단순한 정비를 넘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세우고 건강한 해양레저 문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7차례 출석요구 불응'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목포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체불금액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등 경기위축과 대규모 체불사태 등이 맞물리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 1조 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2조 4499억원에 달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광산구, 어린이날 기념행사 광산구는 지난 26일 하남 경암근린공원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80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 등이 참여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점배연주, 춤 공연, 어린이 대표의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 어린이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됐다. /광산구 제공

광주·전남 대기 건조·강풍...산불 등 화재 주의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입산 자제” 당부

광주와 전남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2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곡성·구례·광양·순천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발효됐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으며 기온은 오전 9도~14도, 오후 17~24도 분포이다.

하늘은 오전 한 때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바다 안개가 끼고 있어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김도기 기자

또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아 만조 시간대에는 저지대 침수도 우려된다.

주요 지점 만조 시각은 고흥 발포 오후 10시 10분(395cm), 거문도 오후 10시 21분(357cm), 진도 오후 11시 43분(400cm), 목포 오전 3시 56분(505cm)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입산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화기사용과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전남소방본부 사칭 물품구매 사기 주의하세요

유사사례 의심시 해당기관 진위여부 확인 당부

전남소방본부는 최근 관공서를 사칭해 민간업체를 상대로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의심 시 즉시 해당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5일 목포와 광양의 3개 업체에서 전남소방본부를 사칭해 회식 관련 장어를 사천

에 주문하고, 위조된 공문서와 물품 지급 결제 약속서 문자를 전달받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음식점 관계자가 소방본부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기 범죄가 전국 소방본부를 비롯해 군과 교도소 등에서도 발

/김 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대선 앞두고 공직기강 잡는다

본청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복무 등 점검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청을 비롯해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선거절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관련 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점검을 통해 출·퇴근 시간 및 유연근무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음 수수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조선주 기자

또 점검과 함께 공직자 주요 선거법 및 교육 현장 갑질 관련 위반 사례를 안내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 해상 1400톤급 화물선 급유 중 병커유 유출

여수시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1400t급 화물선에서 급유 중 기름이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했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쪽 약 1.5km 정박지에서 1400t급 외국적 일반화물선 A호가 200t급 급유선 B 호로부터 기름 수급

중 저유황병커B유가 해상에 유출됐다.

해경은 경비합정과 방제 합정 5척, 유류기관 2척, 민간 방제선 1척 등 총 8척을 동원해 방제 작업했다. 해경은 120m 길이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출차재 등으로 잔류 기름 수거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제거했다. /김 호 기자